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5.12.23

DEC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81.30원 (+0.30원)

KOSPI

4,150.93 (+85.38, +2.12%)

KOSDAQ

929.14 (+13.87, +1.52%)

국고채 10년 금리

3.359(+0.01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디지털자산	그림자 달러 시대의 디지털자산 [박성제, 김두언]

Global Asset Strategy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기존 주도주 + 영역 확장 [박승진]

기업분석

신스틸	IPO주관사 업데이트: 내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을 기대 [한유건]
LX인터내셔널	석탄 시황 완만한 회복 기조[유재선]
엔알비	중장기 공공주도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박찬솔]
미래에셋증권	SpaceX 투자 관련 코멘트 [고연수]

산업분석 Weekly

건설	내년 1월에 예정된 주택 공급 대책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뉴코어	수입규제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내수 호조 긍정적 [박성봉]
페덱스	안정적 실적 흐름에 비용 효율화까지 기대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현대로템, 삼성전기, KT, 하이브, S-Oil, 오리온, DN오토모티브, 인벤티지랩, 제노코

하나증권

디지털자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연구원 박성제 parksungjae@hanafn.com
Analyst 김두언 kimdooun@hanafn.com
RA 안범수 beomsooahn@hanafn.com

2025년 12월 23일 | Global Asset Research

그림자 달러 시대의 디지털자산

가격 투자에서 인프라 투자로의 본질적 전환

2026년 디지털자산 조감도: 가격 투자에서 인프라 투자로의 본질적 전환

2026년 디지털자산 투자는 가격 투자에서 인프라 투자로 본질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더리움의 확장성 혁신 추이,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규모, Ripple의 금융기관 파트너십 성과와 같은 실물 사용 기반 평가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또한 Layer 2 솔루션의 메인넷 거래 이관 규모, DEX의 CEX 시장점유율 흡수 정도, 그리고 Ripple의 국제송금 시장 확대와 Ethena 등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의 성장 등 기술적 혁신이 중장기 디지털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현재 디지털자산 투자는 현물과 선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 자금 유입으로 시장 기반이 견고해지고 있다. 현물 ETF 도입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졌으며, 트럼프 정부의 달러 패권 전략과 맞물려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인프라 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BTC, ETH, XRP 같은 주요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트레저리 기업, 결제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디지털자산이 투기 자산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 과정을 주도하는 기술과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디지털자산 지형도: 디지털자산은 어디까지 성장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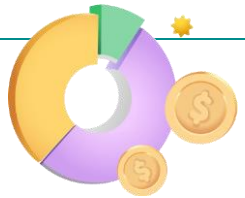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2009년 Satoshi Nakamoto에 의해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암호학적으로 안전한 ECC 기반 ECDSA 서명 알고리즘과 SHA-256 해시 함수를 통해 중앙기관 없는 P2P 네트워크를 구현해냈다. BTC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학적으로 보장된 희소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됐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과 송금에 특화됐다면,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할수 있도록 설계됐다. EVM 위에서 실행되는 smart contract를 통해 이더리움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토큰 발행과 Defi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며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단순한 가치 이전의 수단에서 종합적 금융 체계로 발전시켰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불러온 금융 혁신에도 BTC와 ETH의 큰 가격 변동성은 일상적 결제 수단이 되기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달러와 1:1 peg를 통해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였다. TERA-LUNA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 규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 Tether사의 USDT와 Circle사의 USDC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실용성을 높였다면 Ripple사는 XRP와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인 RLUSD를 활용하여 빠른 국제 송금을 지원하며 국제금융 영역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확장시켰다. 향후 디지털자산은 이러한 인프라 확장을 바탕으로 투기 자산에서 금융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발전해나갈 것이다.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5.12.22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종훈 jonghoonjeo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기존 주도주 + 영역 확장

연내 주요 이벤트 마무리. 중장기 전략 확립 국면. 포트폴리오 정리: ARKQ, BOTZ, ARKX 활용한 모멘텀 영역 확장

- **글로벌 수급**: 연말 일회성 자금 이동의 흐름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ETF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글로벌 선진 주식형 ETF 시장과 북미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1,275.2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형 ETF 시장의 총 자금 순유입액이 +1,446.1억달러로 집계되었다. 분기말, 연말에 나타나는 주식형 ETF 시장의 급격한 수급 방향 변화는 연초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신흥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도 +144.5억달러의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한편 채권형 ETF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미 지역 채권형 ETF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감하면서 선진국 채권형 ETF 시장의 자금 유입액이 +39.6억달러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채권형 ETF 시장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33.3억달러까지 규모가 증가하였다.
- **종목별 수급**: 미국 상장 ETF 종목들의 주간 자금 유출입 흐름에도 연말의 자금 이동 흐름이 크게 반영되었다. 대표 S&P500 지수 추종 ETF인 IVV으로 +267.1억달러가 유입된 동시에 SPY/VOO에서는 총 -248.2억달러가 유출되었으며, 나스닥100 지수 추종 ETF인 QQQ에 +43.5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DIA에서는 -14.3억달러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IVE(S&P500 가치주) +48.2억달러, VUG(성장주) +34.0억달러, IVW(S&P500 성장주) +31.9억달러, MOAT(경제적 해자) +28.9억달러 등 다양한 종목군에서 대형 투자자금이 이동하였다. 채권형 ETF 종목군의 경우 중기국채 ETF인 IEF(+5.5억달러)와 초단기국채 SGOV(+4.9억달러), 하이일드 회사채 HYG(+4.7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된 한편, 장기국채 ETF인 TLT(-6.0억달러), 시니어론 ETF SRLN(-2.4억달러) 등에서는 자금이 유출되었다. 원자재 ETF 종목군에서는 금 현물 ETF인 GLDM과 IAU, IAUM으로 총 +11.3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마이크론 실적과 11월 고용보고서와 CPI, 10월 소매판매 등의 주요 경제지표들, 그리고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들까지 확인하면서 정해져있던 대부분의 스케쥴들을 마무리하였고, 이제는 펀더멘털 환경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는 가운데 정책과 기업들과 관련된 개별 이슈들에 주목하면서 큰 틀의 전략을 잡아 나가야 할 시기로 생각된다. 괴리는 좁혀질 수 있겠으나, 기존 주도 섹터 중심의 긍정적 관점은 유지한다.
-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과 펀더멘털 관점에서는 12월 FOMC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 내용들, 그리고 지난주에 확인되었던 주요 경제지표들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FOMC를 통해 여러가지 해석의 방향성을 열어두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건부의 데이터 디펜던트 기조가 확인되었고, 뒤늦게 확인된 11월 고용 및 물가 데이터 조합은 전보다 도비시한 정책 스탠스를 기대 가능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제지표에 대한 신뢰(항목/지역 대체율, 응답률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수가 남아있어 선반영의 흐름보다는 일희일비하며 한 단계씩 확인해 가는 과정들이 반복될 전망이다. 연준 차기 의장 지명을 둘러싼 변수는 당장의 금리인하보다 향후 정책 정상화에 대한 신뢰 관점에서 살펴야 하는 변수가 되겠다.
- 증시 방향성의 경우, 밸류에이션과 유동성 흐름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AI 버블론과 실적/부채의 Timeline 미스매칭 우려, 경쟁 심화에 따른 불안감도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자주 부각되었으나, 실적 추정치의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던 주요 지수들의 PER이 하락하였다. 여전히 기술주 중심의 실적 전망 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8배 수준까지 상승했던 NASDAQ100 지수의 PER(12개월 선행)은 25.2배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셧다운 종료 이후 정부 기능과 자금 집행 정상화 과정 가운데 미국 정부의 AI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과 로봇, 우주산업 육성 정책들이 구체화(+수출 규제 완화)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중장기 관점에서 CHAT(AI)와 SMH(반도체), ZAP(전력), URA/NLR(원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정책과 확장 모멘텀의 ARKQ/BOTZ(AI&로봇)와 ARKX(우주항공), 수급과 금리 기반의 XLF(금융), 개별 수요 기대 유효한 XBI(바이오테크)와 XLV(헬스케어), 방어 목적의 QDF(퀄리티배당), GDX(금광), SIL(은광) 등도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2025년 12월 23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신스틸 (162300)

IPO주관사 업데이트: 내년은 회복을 넘어 성장을 기대

Not Rated

현재주가(12.22) **1,7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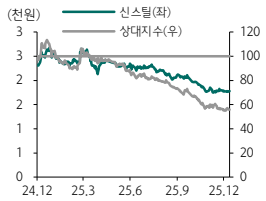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29.14
52주 최고/최저(원)	2,670/1,755
시가총액(억원)	738.2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41,471.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5.1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0.7
외국인지분율(%)	0.44
주요주주 지분율(%)	
신승곤 외 9 인	71.6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N/A	N/A
영업이익(억원)	N/A	N/A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3,433	3,810	3,238	3,866
영업이익	239	159	131	105
세전이익	218	86	89	86
순이익	171	59	64	65
EPS	458	149	157	157
증감율	917.8	(67.5)	5.4	0.0
PER	0.0	58.6	19.0	16.8
PBR	0.0	5.5	1.7	1.3
EV/EBITDA	0.0	4.6	4.7	7.1
ROE	43.2	9.4	9.0	8.0
BPS	1,062	1,581	1,740	1,991
DPS	0	0	19	2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손호성 hss93@hanafn.com

독립형 철강코일센터의 표본

신스틸은 2008년 설립된 강판류 및 기타 철강재 제조 기업이다. 가전제품과 건자재 외장재로 사용되는 컬러강판, 아연도금강판, 냉간압연강판 등이 주요 제품이며, 고객사는 LG전자, 삼성전자, 아르첼릭(튀르키예), 엘아라비(이집트)등이다. 2012년 태국 법인, 2021년 이집트 엘 아라비(EL-ARABY) 합작법인, 2023년 Shin Steel Mexico를 설립하며 거래 국가 확대를 통해 비즈니스를 확장했고, 2024년말 멕시코 공장 준공 이후 2026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독립형 코일센터 체제를 통해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외형 성장('20~24 CAGR: 12.4%)과 수익성(2024년 기준 OPM: 2.7%)을 시현하였으며, 영업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글로벌 신규 고객사 발굴을 중심으로 성장을 계획 중이다. 현재 보유한 공장은 국내 2개, 태국 2개, 이집트 1개, 멕시코 1개로 총 생산가능 CAPA는 약 44만톤(매출액 1조원 수준)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2025년 온기 예상 국가별 매출 비중은 태국 30%, 미국 11%, 멕시코 5%, 터키 5%, 인도 4%, 한국 24%, 기타 21% 이다.

멕시코 공장 생산 본격화 통한 외형 확대 기대

동사의 해외 생산 거점 확보를 통한 성장전략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2년 설립된 태국 법인 매출액은 2013년 64억원→2017년 377억원→2021년 971억원(태국 2공장 증설)→2024년 1,377억원을 기록했으며, 현지 영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시현했다. 태국 공장의 규모는 9.6만톤 수준으로 현재 가동률은 89% 수준이다. 신규로 2024년 준공한 멕시코 공장의 경우 총 생산량은 7.2만톤, 2,000억원 수준의 매출이 가능한 수준의 설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며, 2026년 400억원 수준의 초기 매출이 시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멕시코 공장은 Rule8(멕시코 관세법: 현지 제조를 전제로 원자재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특별 승인 제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초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 승인될 경우 관세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후 현지 고객사 확보 및 국내 고객사 가전 수요에 대응하며 본격적인 외형 확대를 시현할 전망이다.

2025년 실적 횡보 예상, 2026년을 기대

2025년 실적은 매출액 3,681억원(-4.8% YoY), 영업이익 42억원(-59.9% YoY, OPM 1.1%)을 기록할 전망이다. 실적 횡보의 주요인은 글로벌 관세 정책 강화 및 불확실성 확대이다. 이로 인해 멕시코 관세법 RULE8의 승인과 멕시코 공장 가동이 지연되며 원자재 공급 차질 및 관련 비용 발생이 불가피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RULE8의 승인 및 국내 가전 고객사의 북미 지역 영업 확대를 통해 실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영업망을 통한 현지 고객사 확보, 관세 불확실성 완화, 미국 철강 쿼터제 폐지에 따른 물량 확대 등의 기대 요인들이 반영될 경우 2026년 실적은 기존의 성장 궤도로 재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12월 23일 I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LX인터내셔널 (001120)

석탄 시황 완만한 회복 기조

BUY (유지)

목표주가(12M)	40,000원(유지)
현재주가(12.22)	3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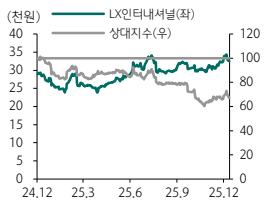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105.93
52주 최고/최저(원)	34,400/23,900
시가총액(십억원)	1,259.7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38,76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15.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6
외국인지분율(%)	21.35
주요주주 지분율(%)	
엘엑스홀딩스 외 1 인	27.86
국민연금공단	9.6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6,503.4	17,174.6
영업이익(십억원)	305.8	361.6
순이익(십억원)	259.3	266.2
EPS(원)	6,084	5,879
BPS(원)	75,895	80,59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4,514.3	16,637.6	16,474.4	16,978.1
영업이익	433.1	489.2	296.2	328.5
세전이익	342.8	460.4	292.4	296.2
순이익	117.1	175.7	225.2	166.6
EPS	3,021	4,533	5,811	4,298
증감율	(77.27)	50.05	28.19	(26.04)
PER	9.73	5.97	5.59	7.56
PBR	0.49	0.39	0.45	0.43
EV/EBITDA	4.40	3.84	5.31	4.98
ROE	5.17	7.12	8.28	5.88
BPS	59,671	69,684	72,816	75,536
DPS	1,200	2,000	1,700	1,4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40,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LX인터내셔널 목표주가 40,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자원 부문의 일시적인 비용 이슈에 더해 유연탄 가격, 물류 운임 등 주요 실적 관련 지표도 전년대비 하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ICI4 가격의 경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자원 부문의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다. 트레이딩/신성장은 자회사 실적 회복이 기대되며 물류 인프라 확대로 CL 부문의 이익 기여도 또한 점진적으로 제고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PER 7.6배, PBR 0.4배다.

4Q25 영업이익 595억원(YoY -36.8%) 컨센서스 하회 전망

4분기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할 전망이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에도 계절적 비수기에 해상운임 및 원자재 가격 약세로 외형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은 595억원으로 전년대비 36.8% 감소할 전망이다. 우기에 주로 반영되던 자원 부문의 폐석처리 비용은 2분기에 이미 반영되었지만 향후 생산성 제고를 위한 GAM 광산 정비 비용이 일회성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가격은 3분기에 저점을 통과했고 유가 하락과 생산량 증가로 인한 단위원가 하락으로 실적은 2026년부터 회복이 기대된다. 니켈은 쿼터 준수로 인한 생산 감소 시점과 건기 시장 공급량 증가와 맞물리며 이익이 단기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팜은 가격 변화가 제한적이었고 판매량 증가로 안정적 실적이 예상된다. 트레이딩/신성장은 IT 트레이딩 물동량 감소에도 에너지 자회사의 실적 회복과 환율 약세로 전년대비 감익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는 분기 단위 평균 운임이 안정적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계절적 물동량 감소로 전분기대비 감익이 예상된다. 지분법은 중국 내수 석탄 가격 약세에 더해 광산 생산량도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기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저점을 통과한 인도네시아 석탄 가격. 중국 수요와 정책이 중요

인도네시아 저열량탄 가격은 지난 3분기 중에 톤당 40달러를 하회한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최근 40달러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격이 아직 유의미한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실적 측면에서 바닥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부여할 수 있다. 최근 나타난 유가 약세가 OPEX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내수 석탄 생산량 통제 기조가 강화되는 경우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여지가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2025년 12월 23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엔알비 (475230)

중장기 공공주도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Not Rated

현재주가(12.22) **15,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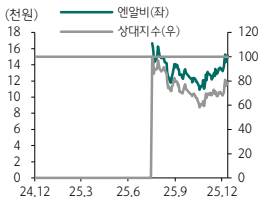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929.14
52주 최고/최저(원)	16,660/10,900
시가총액(억원)	1,579.7
시가총액비중(%)	0.03
발행주식수(천주)	10,427.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79.2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23.5
외국인지분율(%)	3.92
주요주주 지분율(%)	
강건우 외 2 인	48.34
이성규	5.3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N/A	N/A
영업이익(억원)	N/A	N/A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0	180	515	528
영업이익	0	22	121	62
세전이익	0	(158)	36	10
순이익	0	(156)	15	20
EPS	0	(2,750)	263	260
증감율	N/A	N/A	흑전	(1.1)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0.0	0.0	0.0	0.0
ROE	0.0	113.8	(22.2)	5.0
BPS	0	(2,399)	(1,112)	4,797
DPS	6,754	0	0	0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모듈러 학교 시장의 강자, 고층 주택 시장 선점 노려

국내 학교 시장에서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PC모듈러 업체다. 현 시장은 주로철골 구조 모듈러가 대부분인데, PC(Precast Concrete) 공법을 도입해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기숙사와 주택 등 주거시설 시장이다. 현재 유창이앤씨/플랜엠/금강공업/대승엔지니어링/KC산업 등과 모듈러 학교 시장에서 경쟁 중이며, 3Q25 시장 점유율은 27%이다. 이제 학교 시장에서 보여주었던 기술력으로 고층 주택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 중이다. 현재 PC모듈러 방식의 시장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우수한 내진 설계로 모듈러 고층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엔알비가 국내 모듈러 최고층 주택인 22층 LH 의왕초평A-4BL 수주했다는 점, GH 하남교산 A1BL 국토부 R&D 실증 과제를 추진할 주체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언급한 기술력의 방증이다. 사업 전략을 24년 철골 방식에서 PC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품 실적이 감소한 이력이 있지만, 25년 7월 상장 후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 본 궤도에 올랐다는 판단이다.

왜 모듈러인가?

정부가 모듈러 공법 확대, 공공 주도 수도권 주택 공급 의지를 밝혔다. 모듈러 공법으로 주택을 지으면 인력 부족 현상, 불규칙한 날씨, 시공 난이도 등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존 공사 방식 대비 평균 30%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금 주택 모듈(1세대: 1-3모듈)은 공장 제작, 현장 운송 및 조립 방식이다. 현재 총 시공 기간이 2년 조금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제로 모듈러 제작 기간은 90일, 현장 설치는 30일 이내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6년 모듈러 특별법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지고, 모듈러 시공 관련 업계 경험치가 쌓인다면 총 공사 기간이 30% 보다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수도권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LH/GH가 공공 모듈러 주택 시장 규모를 꾸준히 키울 것으로 본다. 25년 2,5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추정되는데, 28년까지 매년 약 2,500억원 신규 시장을 형성해 3년 후 LH/GH가 합산으로 발주하는 규모만 1조원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투자의견 및 밸류에이션

최근 엔알비의 주가는 산업재해 이슈에 반응하며 등락 중인데, 엔알비 모듈러 주택 제조방식은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기존 대비 안전한 시공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현재 시가총액이 수주잔고의 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장 후 6개월 오버행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26년 수주 잔고의 3천억원 돌파는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본다.

2025년 12월 2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미래에셋증권 (006800)

SpaceX 투자 관련 코멘트

BUY

목표주가(12M)	26,000원
현재주가(12월22일)	2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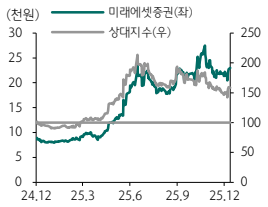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pt)	4,105.93
52주최고/최저(원)	27,500/7,980
시가총액(십억원)	13,043.0
시가총액비중(%)	0.38
발행주식수(천주)	567,085.7
60일 평균거래량(천주)	4,358.2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100
외국인 지분율(%)	11.06
주요주주 지분율(%)	
미래에셋캐피탈 외 18인	33.23
네이버	8.36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5,692	25,518
영업이익(십억원)	1,356	1,477
순이익(십억원)	1,263	1,233
EPS(원)	1,713	1,702
BPS(원)	21,895	23,292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순영업수익	1,887.4	2,834.4	3,447.8	3,524.9
영업이익	521.0	1,188.1	1,395.7	1,555.8
세전이익	374.2	1,224.5	1,680.9	1,686.7
지배순이익	322.4	921.6	1,270.2	1,229.2
PER	14.3	5.1	10.6	11.0
PBR	0.4	0.4	1.1	1.0
ROA	0.3	0.7	0.9	0.8
ROE	2.9	7.6	9.9	8.9
DPS	150	250	380	480
배당성향	38.3	20.9	44.2	45.9
배당수익률	2.0	3.1	1.7	2.1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SpaceX 상장 시 최대 수혜주는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아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그룹의 SpaceX 투자 건이 부각되며, 미래에셋벤처투자 주가는 지난 5일간 약 114% 상승했다. 다만 실제 투자 구조와 규모를 감안할 때, SpaceX 투자에 따른 실질적 수혜는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아닌 미래에셋증권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한다.

미래에셋그룹은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SpaceX에 투자했으며, **그룹 차원의 총 투자 규모는 2.78억달러(약 4,000억원)**로 추정된다. 해당 투자는 미래에셋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계열사 및 리테일이 LP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의 출자 금액은 약 2,000억원**('미래에셋글로벌스페이스투자조합1호' 1,164억원, '미래에셋글로벌섹터리더투자조합1호' 약 885억원)이며,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투자분을 포함할 경우 **SpaceX 투자금액 기준 미래에셋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벤처투자의 투자금액은 약 4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SpaceX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은 미래에셋증권 실적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SpaceX 관련 추가적인 평가이익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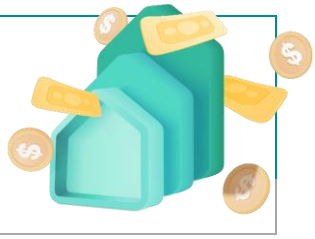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미래에셋증권의 투자목적자산은 2025년 3분기 기준 약 10.5조원으로, 국내외 유가증권과 비상장주식, 해외부동산펀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투자목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은 분기별로 실적에 반영되지만, 2022~2023년에는 해외 CRE 관련 손상차손이 함께 인식되어 비상장주식의 평가이익만을 분리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2025년 8월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4,400억달러로 평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최소 8,000억달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SpaceX 관련 추가적인 평가이익 발생 가능성은 높으며,** AI·우주 등 기타 혁신기업의 투자분도 중장기적으로 실적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6,000원 유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26,000원을 유지한다. 투자목적자산에서의 평가이익을 실적 추정치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해외 CRE 익스포저는 1.2조원 수준으로 손상차손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나, 투자목적자산 내 **기업금융과 대체투자의 비중은 과거 5:5 수준에서 최근 8:2 수준까지 개선**된 상황이며 **기업금융에서 혁신기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실적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는 판단이다. SpaceX 상장 시 최대 수혜주가 미래에셋벤처투자가 아닌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에 예정된 주택 공급 대책



건설 Weekly | 2025.12.23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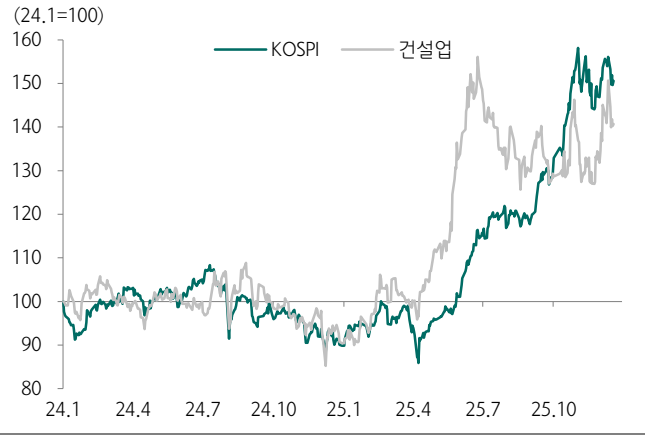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3.1%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과 외인이 매수, 연기금이 매도했다. 전 주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차익실현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해석한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6.2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0.1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4주 연속 상승했다(+0.07%), 전세가는 27주 연속 상승했다(+0.09%). 수도권 매매가는 42주 연속 상승(+0.11%), 전세가도 43주 연속 상승(+0.13%)했다. 서울 매매가격은 47주 연속 상승(+0.18%), 전세가는 44주 연속 상승(+0.17%)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은 모두 7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2%). 전세가격은 지방광역시 20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16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6%). 광역시별로 인천(+0.04%), 부산(+0.03%), 울산(+0.20%), 광주(+0.01%)가 상승했으며, 대구(-0.03%), 대전(-0.02%)은 하락했다.
- 청약홈에서의 청약은 3건(서울강남, 인천송도, 경기용인)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도 미달이 크게 발생했다. 이번 주 1순위 청약은 4건(대전, 경기이천, 부산, 경북안동)이다.
- 주택 공급 정책이 내년 1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수도권 2030년까지 총 135만호(연간 27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한 이후,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당 정책위의장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장과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진행 중으로, 최근 국토부장관의 발언에 따라 내년 1월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주택 공급 지표는 좋지 않다. 올해 10월 누적 기준 주택 착공 물량은 18.9만호로 전년동기대비 13.6% 적다. 작년 연말까지 약 30만호를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적은 물량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준공물량의 경우, 올해 7월부터 4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8~10월은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2026년 입주 감소가 예상되기에, 내년 초에 있을 공급 정책에 관심이 클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의 환기는 주택주 센티에 긍정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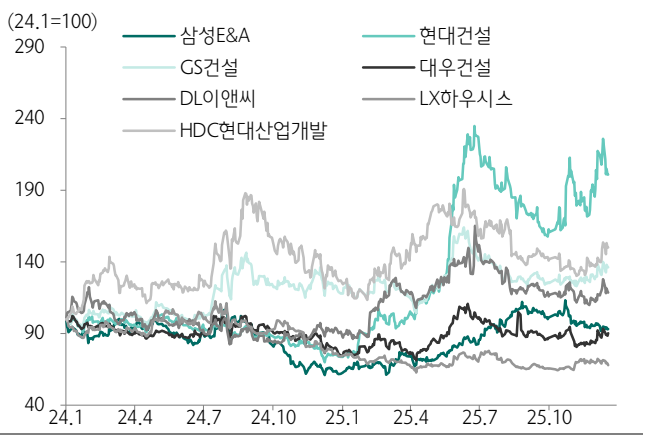
주간 건설업 주가차트

도표 1. KOSPI 및 건설섹터 수익률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도표 2. 건설업 커버리지 종목 주가차트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2025년 12월 23일 | Global Equity

뉴코어(NUE. US)

수입규제와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내수 호조 긍정적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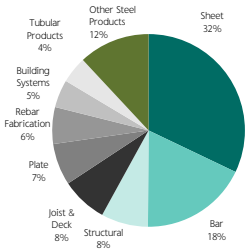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76.57 USD
CP(12.19)	159.15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소재
주요 영업	금속 & 채광
홈페이지	www.nucor.com
시가총액(십억USD)	36.4
시가총액(조원)	53.9
52주최고/최저(USD)	168.065/97.59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2.35
STATE FARM MUTUAL AUTO INS	11.0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4.5	28.0	36.5
상대	1.0	13.5	21.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	34,714	30,734	32,685	34,498
영업이익	6,230	2,842	2,892	3,739
순이익	4,525	2,027	1,870	2,499
EPS(USD)	19.2	10.8	8.1	11.1
EPS(YOY, %)	(35.8)	(43.8)	(25.2)	37.6
ROE(%)	22.9	9.8	9.1	11.2
PER(배)	9.1	10.8	19.0	13.8
PBR(배)	2.0	1.3	1.7	1.5
배당률(%)	1.2	1.9	1.4	1.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철강 수입 감소와 견조한 내수로 안정적인 3Q25 영업실적 달성

3분기 뉴코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5.2억달러(YoY +14.5%, QoQ +0.8%)와 8.9억(YoY +56.7%, QoQ -2.9%)를 기록했다. 판재와 봉형강 등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주력 사업부인 Steel Mill 부문의 3분기 출하는 643만톤(YoY +17.0%, QoQ -0.7%)을 기록하며 가이던스를 상회했다. 특히 봉강 출하량이 219만톤(YoY +13.7%, QoQ +2.0%)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함과 동시에 ASP가 전분기대비 3.7% 상승하며 스프레드 또한 확대되었는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50% 수입 관세 영향으로 철강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견조한 내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인프라용 강재 수요 호조와 렉싱턴 철근공장의 3분기 생산 시작 영향으로 Steel Product 부문의 철근 가공품 출하량도 36만톤(YoY +28.1%, QoQ +16.3%)을 기록했다. 한편, 판재류 출하는 303만톤(YoY +6.8%, QoQ -0.9%)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고 ASP 하락으로 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되었다. 한편, DRI 제조와 고철 가공을 담당하는 원재료 부문은 3분기 스크랩 판가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4,300만 달러(YoY -164.8%, QoQ -24.6%)에 그쳤다.

4분기 수요는 견조하겠지만 비수기 영향으로 판매 감소 부정적

4분기에도 견조한 인프라향 수요와 수입산 철강 감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봉강 수주잔고가 전년대비 35% 증가했고 데이터센터와 전력시설 건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봉강과 철근 가공제품 수요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4분기는 연말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출하량 감소가 전망된다. 판재류 또한 미국 내수가격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수기로 판매량은 감소할 전망이다. 동시에 DRI 생산설비 정기보수로 원재료 부문 또한 판매 감소가 전망된다.

데이터센터향 중장기 수요 호조와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 긍정적

데이터센터와 전력설비 건설 확대로 봉형강 및 철강 가공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뉴코어의 철강 가공품 수주잔고가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고 2026년에도 수요 호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철강 가공품 판매 증가로 뉴코어의 제품 믹스 개선도 기대된다. 동시에 뉴코어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가공품 및 철강 제품 대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미국 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성장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도 가능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3분기에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2.3억달러의 주주환원을 실시했는데 3분기 누적 주주환원율이 72%에 달하며 주주가치 재고에 적극적이라는 것도 긍정적이다.

2025년 12월 23일 | Global Equity

페덱스 (FDX.US)

안정적 실적 흐름에 비용 효율화까지 기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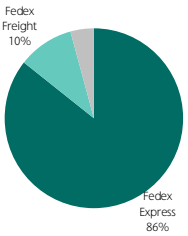
TP(컨센서스)	298.21 USD
CP(12.21)	288.78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항공 화물 운송 & 물류
홈페이지	www.fedex.com
시가총액(십억USD)	67.9
시가총액(조원)	100.4
52주최고/최저()	290.56/194.295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0.04
Smith Frederick Wallace	8.22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7.2	27.8	4.7
상대	3.7	13.2	(10.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87,693	87,926	92,273	96,098
영업이익	5,559	5,217	5,997	6,802
순이익	4,331	4,092	4,317	4,831
EPS(USD)	17.8	18.2	18.4	21.1
EPS(YOY, %)	19.0	2.2	1.4	14.7
ROE(%)	16.1	14.7	15.1	16.2
PER(배)	13.1	12.0	15.7	13.7
PBR(배)	2.2	1.8	2.4	2.2
배당률(%)	2.0	2.5	2.0	2.2

자료: Bloomberg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FY2026 2Q: 매출액 +7%, 영업이익 +31%

페덱스의 FY2026 2분기(2025년 9월~11월) 매출액은 7% (YoY) 증가한 $235억, 수정 영업이익은 31% 증가한 $13.8억(영업이익률 5.9%)을 기록하며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국내 항공 특송 매출액이 13% (YoY), 택배 부문이 11% 증가하며 매출을 견인했고, 미-중 간 물동량 감소로 국제 항공 특송 매출액은 2% 증가(물동량 2% 감소, 운임 3% 상승)에 그쳤다. 화물 부문은 미국 내 산업 경기 위축과 소량화물 물동량 감소로 매출액/수익성 모두 2%/71% (YoY) 감소했다.

항공 네트워크 변화 많았던 2분기

페덱스는 Purple/White Network의 아시아-미주 노선 공급량을 각각 25%/35% 축소했고, 대신 아시아-유럽 노선으로 항공편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미국 항공당국이 11월 이후 MD-11 기종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면서 전체 항공운송 공급량의 4% 손실이 발생했고, 손익에도 $2,500만의 영향이 있었다. 페덱스는 여전히 네트워크/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FY2027까지 네트워크 규모를 30% 축소하고 $20억 규모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FY2026 가이던스 상향 조정: 매출액 +5~6%, 조정 EPS $17.8~$19.0

페덱스는 미국 내 택배/항공운송 호조에 따라 FY2026 가이던스를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 연간 매출액 성장률 5~6% (기존 4~6%)와 조정 EPS $17.8~19.0(기존 $17.2~19.0)을 제시했다. 화물 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택배 부문의 점유율 상승과 수익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영업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덱스는 FY2026 화물 부문의 매출액 소폭 감소와 영업이익률 하락을 전망하고 있고, 대신 항공운송/택배 사업부의 매출액 증가(+7%)와 영업이익률 개선을 전망 중이다. 3분기 EPS는 2분기 대비로는 낮을 것으로 예상하나, 4분기는 계절적으로 회계연도 중 가장 높은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현재 페덱스의 12MF P/E는 16배로 코로나19 이후 평균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항공운송과 화물 부문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으나, 미국 국내 항공운송/택배 부문에서의 성장성과 점유율 확대는 지속될 것이고, FY2027로 넘어가면서 네트워크 효율화 효과로 비용 절감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가는 실적에 기반하여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12/22	106,300	110,500	3.95%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현대로템 (064350.KS)	12/22	179,300	183,000	2.06%	• 페루 전차/장갑차 총괄합의서 체결로 26년, 27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 높아짐 • 4분기, 2026년에도 증익기조 지속. PER은 18배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
삼성전기 (009150.KS)	12/22	253,000	254,500	0.59%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KT (030200.KS)	12/22	53,800	53,100	-1.30%	• 해킹 관련 비용, 향후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 • 기대 배당수익률, 세전 7.5%, 배당금 2천만원 이하 세후 6.3%로 대단히 매력적인 수준
하이브 (352820.KS)	12/22	313,500	309,000	-1.44%	•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S-Oil (010950.KS)	12/22	81,500	84,000	3.07%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오리온 (271560.KS)	12/22	106,000	106,800	0.75%	• 25년 상반기 톤당 만달러까지 상승했던 카카오 가격 현재 6천달러 내외까지 하락 • 중국 내 주요 부자재 및 원자재도 가격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원가 부담 완화 예상
DN오토모티브 (007340.KS)	12/22	26,250	25,850	-1.52%	• 연말 배당 투자 관점에서 배당수익률 높은 기업,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 5%대 후반 • 자회사 상장 시 유입된 현금 기반 차입금 축소, 신공장 건설 통해 본업 가치 상승 기대
인벤티지랩 (389470.KQ)	12/22	86,200	78,800	-8.58%	• 지속형, 임상 데이터 확보와 공동연구 확장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 상승 • 베링거인겔하임과의 연구 확장, 기술 이전 계약 체결시 지속형 플랫폼 가치 재평가 기대
제노코 (361390.KQ)	12/22	16,390	18,110	10.49%	• 2026년, 한국항공우주와 협력 강화로 강력한 시너지 발생 예상 • 한국형 MUM-T 프로젝트에 중추적 역할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81%	-1.32%p	+73.14%	+17.1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12/22	1,733,000	1,724,000	-0.52%	• 신규 수주 기반으로 5공장 안정적인 ramp-up, 내년 1분기 초 6공장 증설 계획 발표 예상 • 1월 12~15일 개최되는 JPM healthcare에서 향후 사업전망 main track에서 발표 예정
아이에스동서 (010780.KS)	12/15	22,600	24,400	7.96%	• 26년 4월, 3.5조원의 초대형 자체 사업 3,443세대의 경산 중산지구 분양 결정 • 지방광역시 집값 반등과 대구 미분양 감소 등 긍정적 시그널 감지
한국단자 (025540.KS)	12/8	66,700	69,500	4.20%	• 자동차의 전장화/전동화에 따른 수혜와 고객사 다변화 기대 • 하반기 미국법인 회복 및 유럽법인 호실적 지속 전망
케이엠더블유 (032500.KQ)	12/1	15,110	16,400	8.54%	• 트럼프 600MHz 광대역 주파수 할당 촉구에 주목, 2026년 대규모 투자 기대 • 중국 부품 제재 강화, 오픈랜 확대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 양호한 흐름 지속
지역난방공사 (071320.KS)	11/17	105,200	101,800	-3.23%	• 3Q25 Review 매출액 7,582억원(YoY +29.6%), 영업이익 894억원(YoY +209.6%) 기록 • 열요금 변동, 판매량 증감, 원가 변화고 세 가지 변수 모두 양호한 방향 나타내는 중
SK하이닉스 (000660.KS)	10/20	465,500	580,000	24.60%	• 3Q25 Review 매출액 24.5조원(YoY +39.0%), 영업이익 11.4조원(YoY +62.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전기 (009150.KS)	10/13	210,500	254,500	20.90%	• 컴포넌트 사업부 외에도 패키지 및 광학솔루션 사업부의 우상향 가시성 확보 • 고부가 AI 서버 및 전장향 MLCC 공급 확대로 연간 실적 호조 전망
하이브 (352820.KS)	10/13	272,500	309,000	13.39%	• BTS, 내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삼성전자 (005930.KS)	10/1	83,900	110,500	31.70%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10/1	115,500	126,500	9.52%	• 경쟁은행 대비 확대되었던 PBR gap이 좁혀지면서 가격 매력 재부각 • 25년 총주주환원 규모 총 3.01조원으로 총주주환원율 약 53% 수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0/1	145,000	159,500	10.00%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하반기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이후 추가적인 수신 기반 확대 전망
S-Oil (010950.KS)	10/1	62,400	84,000	34.62%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4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3.60%	-5.41%p	+59.75%	+3.7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830	20.67%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7,610	35.46%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805	20.97%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7,050	75.95%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49.14	347.25	6.4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6.16	58.83	63.73	8.33%	• 전통 방산기업들과 더불어 AI, 증강현실/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연료시스템 등 첨단 군사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 • 각국 정부들이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수혜 전망. 미 국방부의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힘입어 견조한 수급 모멘텀 기대
PAVE (미국 인프라 주식)	2025.11.124	38.07	48.30	3.98%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QGRO (퀄리티 성장주)	2025.01.03	101.56	114.02	12.27%	• 성장성과 퀄리티를 함께 갖춘 중대형주로 구성된 ETF •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관심 증가. FOMC와 펀더멘털 퀄리티에 대한 해석이 변화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견고한 주가 흐름을 유지하며 상대 우위 보여줄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 미국 10월 내구재 주문 (E --, 9월 0.5%) ▪ 미국 11월 광공업생산 (E 0.1%, 10월 0.1%)	▪ 미국 1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E --, 11월 88.7P)		▪ 일본 11월 실업률 (E --, 10월 2.6%)	
12.28	12.29	12.30	12.31	1.1	1.2	1.3
		▪ 한국 11월 광공업생산 (E --, 10월 -8.1%) ▪ 미국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9월 0.0%) ▪ 미국 10월 S&P 코어로직 CS 20개 도시 주택가격지수 (E 0.1%, 9월 0.1%)	▪ 한국 12월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 (E --/--, 11월 2.4%/2.0%) ▪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E --, 11월 49.2P) ▪ 중국 12월 국가통계국 서비스업 PMI (E --, 11월 49.5P)	▪ 한국 12월 수출/입 (E --/--, 11월 8.4%/1.1%)	▪ 유로존 12월 HCOB 제조업 PMI F (E 49.2P, 11월 49.6P)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